

유형업소 · 경찰 유착, 전국적인 문제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일파만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유형업소와 경찰 유착 등 적폐가 단지 수도권과 강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닝썬 직원의 손님 폭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의 폭력,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판매, 경찰 유착, 성접대 의혹으로까지 번졌고, 가수 정준영씨 등의 심각한 성폭력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더니 급기야 '경찰청장'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버닝썬 직원 손님 폭행부터 정준영 성폭력까지 드러나 민감률 경찰청장 "모든 의혹 수사 명확하게 사실 밝힐 것" 전북경찰청 "마약류 범죄 근절에 수사력 집중할 계획"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승리의 성접대 정황과 정준영이 무단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정황은 물론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하는 것은 치안과 마약·조직적 범죄 문제는 주로 유형업소를 끼고 운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클럽이 지방 도시들에서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을까? 당연히 경찰과

유착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지치경찰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지치경찰이 시행되면 경찰이 지방 토호세력과 더 밀착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민감률 경찰청장은 경찰과 유형업소간 유착 의혹과 관해서는 "모든 의혹을 내·수사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도 유형업소의 마약류 밀반입, 유통, 투약 뿐만

아니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범까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 일제점검도 추진한다"며, "일제점검에 마약류 보관·투약 여부 확인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위한 홍보활동과 비상대피로, 방화문 등 점검, 건축법위반 및 영업시설 위반 등의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 덕진권역 빛물공동체 조성 박차

시, 4억원 투입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 1개 마을에 시설 등 구축

서학동예술마을에 이어 전주시 덕진구 권역에도 버려지는 빛물을 모아 재이용하는 빛물공동체가 조성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부부는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연계와 실정에 맞는 빛물공동체를 조성하는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시범사업인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빛물이용시설과 빛물침투·저류시설 등을 설치해서

빛물을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덕진구 권역에 맞는 1개 마을 50가구 규모의 빛물이용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설계·공사·운영·성평가 등 사업의 모든 절차와 진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가정비

물 유통 제로화'를 테마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시범마을에는 주요 핵심시설인 빛물이용시설(빛물저금통)이 가옥과 건물별 1개소당 평균 저장용량 2톤씩 총 100톤 규모로 여과기능이 탁월한 탄소여과장치와 설치돼 주민들이 깨끗한 빛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대상 마을에는 마을공공시설의 여유 부지에 빛물정원과 공동텃밭 등 공동체합치시설이 조성돼 시범마을의 홍보·교육 및 빛물이용의 원리에 대한 견학체험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보인 전주 첫 마중길

미세먼지 없이 푸른 하늘을 보인 14일 전주 첫 마중길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공기를 머금으며 산책을 하고 있다.

서은경 전 국회의장 이사장 연구비 부정 '무혐의'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전북대 반도체학과 교수)이 연구비 부정징계 의혹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3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서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세 가지 피의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창의재단 제20대 이사장에 취임한 서 전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같은 해 7월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형사 고발됐었다.

이에 서 전 이사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99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서은경 전 이사장은 "이번 결과로 연구자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연구 경쟁력 향상에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형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폭행후 두려워 살해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신고를 할까 두려워 살해까지 한 40대 남자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처치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2시 54분경 전북 정읍 정읍에서 어머니 A모(당시 77세)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넘어뜨렸다.

이후, A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심신상실 주장이 인정되면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1심은 "김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들켜지 않으려 옷장에 시체를 숨기려

했다"며 "누나가 청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미약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화장품 박스 훔친 60대 검거

화장품 박스를 유모차에 실어 훔친 60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A모(6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43분경 군산시내 한 상가 앞에서 14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모차에 실어가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훈 기자



전북 원주군에 사는 강홍희(76)씨는 1988년부터 32년간 전북대병원만 다니며 치료를 받은 강씨는 그동안 암수술 4회 원치와 10여회의 수술, 응급실 응급진료 39회, 21개과 진료를 받아왔다.

32년간 질병과의 싸움 이겨내

원주 거주 강홍희씨, 전북대병원서 진료 받아와 "병간호 평행해 아내에게 감사 건강하게 살것"

"32년은 기적의 연속... 전북대병원에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서 32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4번의 암수술을 비롯한 숏한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낸 일명 '불사조 할아버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 원주군에 사는 강홍희(76)씨는 1988년부터 32년간 전북대병원만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그동안 암수술 4회 원치와 10여회의 수술, 응급실 응급진료 39회, 21개과 진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365일이 넘고 진료기록도 3000쪽이 넘는 정도이다.

전북대병원과의 인연은 1988년 교통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간경화와 간암 2회, 식도암과 대장성결핵수술까지 4종의 암을 수술과 치료를 통해 완치했다.

특히, 비장절개와 식도암으로 인한 두 번은 개복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대 수술이었지만 무사히 이겨냈고 고관절 수술 2회, 정강이 골절 수술, 열골합골 수술, 쇄골뼈, 갈비뼈 골절 수술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지 않은 수술을 없을 정도로 많은 수술을 했으며 모두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불사조 명칭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울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수술과 투병생활을 이어온 강 씨가 생과 사의 교미를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 마다 가족과 지인들이 불러준 별명이다. 불사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이겨낸 비결에 3개월에 한 번씩 해온 정기검진과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이다."며, "무엇보다 최고의 비결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해온 전북대병원 의료진들의 노력과 관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사조할아버지는 "뉘니뉘니 해도 가장 고마운 것은 전북대병원입니다. 환자를 살려내려는 병원의 노력과 의사선생님들의 관심과 정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항상 병원에 감사하고 감사하 마음입니다."고 덧붙였다.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2남2녀의 자녀까지 훌륭히 키워온 불사조 할아버지에게 최근 전북대병원에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평생 자신의 곁에서 간호를 해왔던 부인 이양순(74)씨가 전북대병원에서 허리수술과 90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9일 무사히 퇴원하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의 극진한 병간호 속에서 건강을 회복한 이양순 할머니는 "병치레를 많이 한 남편이 50세까지 만이라도 살아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북대병원" 덕분에 남편 건강도 되찾고 나 역시 남편의 병간호까지 받으면서 함께 손잡고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앞으로 전주지역에서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단지 안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3월부터 접수되는 건축심의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확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숲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놀이터로 설치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숲 놀이터가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은 놀이시설 안전인증제품일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건물식 주차장 보수

전주 한옥마을 내 건물식 주차장 보수 공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방수공사 및 주차라인 재구획 등 한옥마을 내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5월 중순까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건물식 주차장의 주차면은 총 100면으로 공사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단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대성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성공영주차장은 완산구 훈항로 5209번지에 위치해 2만1814㎡ 규모로 총 63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한옥마을과 2.6km 떨어져 있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큰 불편 없이 한옥마을을 오갈 수 있다. 공단은 25인승 셔틀버스를 평일 1대, 휴일 4대 운영한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자생단체장 공감 설명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권역별 지역인 각동에 직접 찾아가 자생단체장과 전주 특례시 지정이 꼭 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4일간 실시하는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는 지금 시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자생단체장과 함께 전주시가 왜 특례시로 지정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 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워크숍

전북경찰청이 초기 현장대응 향상을 위한 112종합상황실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전주전문회관에서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및 각 경찰서 상황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안정적인 치안상황관리를 위한 112종합상황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동성 범죄 대응 등 112총력 우수사례 발표와 안정적 상황관리 방안 토론 등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강석훈 기자

북리후생비 빼돌린 간부 약식 명령

북리후생비를 빼돌린 간부가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 한 민간 봉사단체 간부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에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쓰여야할 북리후생비 1100만원을 가로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만취상태 주차사고 낸 경찰관 징직 2개월

만취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계경장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9분경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음

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